

수경침에서 수학적 원리

이 강 섭 (단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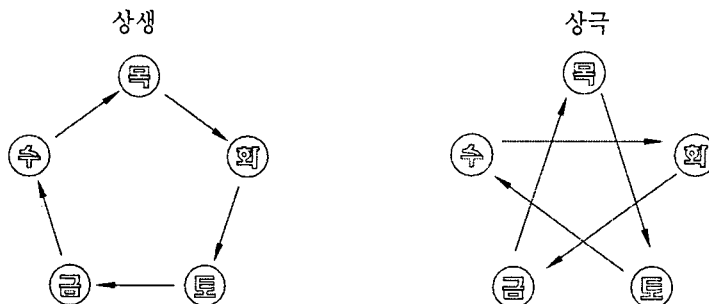
박 용 범 (단국대학교 대학원)

음양오행과 사상의학바탕으로 오랜 연구를 거쳐 1995년경에 수경침을 창시 되었다. 수경침의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동양사상인 음양오행을 이론적 배경으로 인체의 체질의 수학적 개념을 알아보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경침의 원리를 알아보았다. 수경침이란 수신경락팔체질침(手新經絡八體質鍼)의 약어로 수지침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침으로 손에 있는 새로운 경락에 여덟 체질로 구분하여 놓는 침이라는 뜻이다. 음양사상에서는 자연의 모든 사물의 속성을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으로 나누고, 어떠한 사물도 내부에는 음적이고 양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다. 음과 양 사이에는 서로 대립, 의존과 소장(消長) 및 전화(轉化)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행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일 중에서 목, 화, 수, 금, 토에 해당한다. 이 다섯 가지의 행성이 나타내는 독특한 기운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인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목, 화, 토, 금, 수라는 물질이 띠는 속성에 따라 운동과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다섯 가지 물질은 상호 상생과 상극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는데 이를 오행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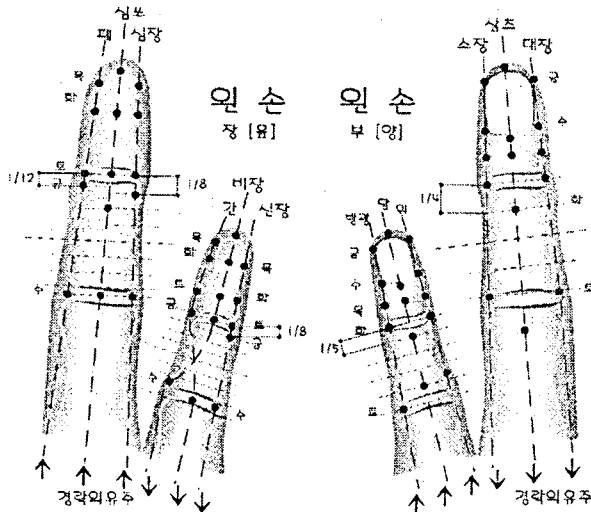
오행이론은 의학에 응용되어 인체의 생리와 병리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과의 상호관계 등을 설명하며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오행의 메커니즘은 상생·상극과 상승·상모 및 오행 귀류를 포함하고 있다.

사상은 이제마 선생이 1894년에 펴낸 ‘동의수세보원’에 포함된 의학이론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장부의 크기(물리적 크기만을 이르는 것이 아님)에 의한 배열로 사람들을 네 가지 상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의해 체질별 외형적 특성, 성격, 병증 등의 차이를 분석하고 치료 방법까지 제시하는 체계적인 이론이다. 팔 체질의 장부 배열의 수학적 원리는 오행에서 상생과 상극의 영향은 서로 다르므로 이 영향의 크기에 따라 오행의 원소들 간에 각각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다. 영향력이 크기는 상생보다는 상극이 더 크고, 영향을 행하는 것보다는 영향을 받는 것이 더 크다. 어느 원소가 가장 작다면 다른 원소들도 서로 상생, 상극의 작용을 받아 그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된다.



수경침의 새로운 개념은 독창적인 손의 신경락, 역오행의 적용, 각 장부 내에 오행의 내재에서는 기존의 한방은 각 장부를 음양오행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 각 장부 안에 또다시 음양오행과 상생, 상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경침에서는 장부 안에도 그 장부들의 크기에 비례하는 오행이 내재되어 있다.

오수혈도(五輸穴圖)



체질 판정을 수학적으로 보면 두 집합 $A = \{\text{토, 금, 수, 목}\}$ $B = \{\text{소양, 소음, 태양, 태음}\}$ 라고 하면 $b = f(x, y)$ 의 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임의의 $x, y \in A$ 에 대하여 $b = f(x, y) = (x \text{가 가장 강하고 } y \text{는 가장 약한})$ 으로 정의하면 집합A에서 B로의 함수가 된다.

- (소양)= $f(\text{土}, \text{水})$: 土의 속성들을 가장 크고 강하고 水의 속성을 가장 약하고 작게 타고난다.
- (태양)= $f(\text{金}, \text{木})$: 金의 속성들을 가장 크고 강하며 木의 속성을 가장 약하고 작게 타고난다.
- (소음)= $f(\text{水}, \text{土})$: 水의 속성들을 가장 크고 강하며 土의 속성을 가장 약하고 작게 타고난다.
- (태음)= $f(\text{木}, \text{金})$: 木의 속성들을 가장 크고 강하며 金의 속성을 가장 약하고 작게 타고난다.

두 집합 $A = \{\text{오행}\}$, $B = \{\text{팔 체질}\}$ 일 때, (체질의 양)= $y = f(\text{오행적용}) = \text{나} < \text{모} < \text{자} < \text{승} < \text{극}$ 와 (체질이 음)= $y = f(\text{역오행적용}) = \text{나} > \text{모} > \text{자} > \text{승} > \text{극}$ 의해 체질이 결정된다.

- 금양체질 : 폐 > 비 > 심 > 신 > 간 (간소) 금양과 목양은 정반대
- 금음체질 : 폐 > 신 > 비 > 심 > 간 (간소) 금음과 목음은 정반대
- 목양체질 : 간 > 신 > 심 > 비 > 폐 (간대)
- 목음체질 : 간 > 심 > 비 > 신 > 폐 (폐소)
- 토양체질 : 비 > 심 > 간 > 폐 > 신 (신소) 토양과 수양은 정반대
- 토음체질 : 비 > 폐 > 심 > 간 > 신 (비대) 토음과 수음은 정반대
- 수양체질 : 신 > 폐 > 간 > 심 > 비 (신대)
- 수음체질 : 신 > 간 > 심 > 폐 > 비 (비소)